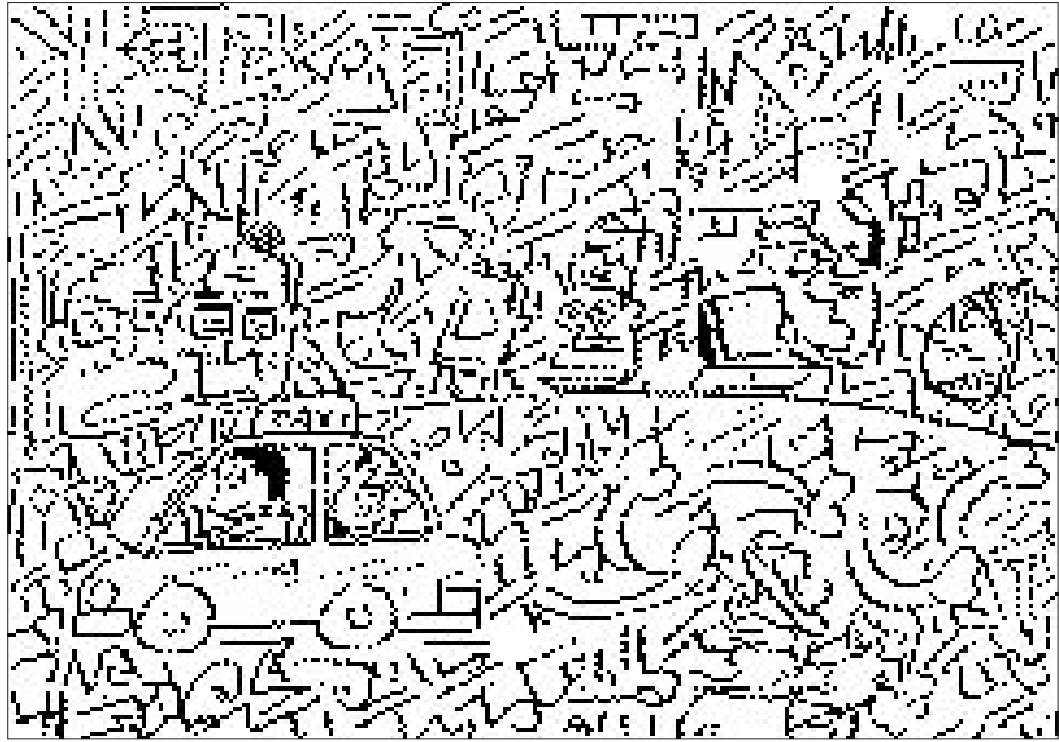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51>



총알 택시 기사와 목사님

신자이기는 하지만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 택시 기사와 목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목사는 자신이 총알 택시 기사보다 훨씬 칭찬을 많이 들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늘은 총알 택시 운전사를 더 칭찬하였다. 기가 막힌 목사가 그 이유를 물어보자 하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늘 사람들을 좋게 했지만, 이 사람은 늘 기도하게 했느니라.”



지난주 정답 다리미, 슬리퍼, 갈대기, A자, 못, 구두, 화살, 은행잎, 음표

찾아(분)세(오) 바늘, 송사리, 슬리퍼, 담배 파이프, 구두, 풍당연필, 열대어, 못, 은행잎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이재복 <광주시 남구 월산 1동> 전다경 <광주시 남구 주월 1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 이순신 전사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1597년 1월 왜군의 제 2차 조선 침략전쟁(정유재란)이 시작됐다.

왜군 총병력 14만 1천500명, 1차 침입 당시 전라좌수영의 수군절도사도 있던 이순신에게 육포해전 대패이후 당포·당항포·한산도·부산 등지에서 처참한 패배를 기록했던 왜군은 수군을 강화해 재침략을 감행한다.

정유재란이 발발한 1597년 1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모함에 의해 하옥돼 원균에 자리를 내준 상태였다. 그리고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은 원균과 전라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의 수군이 전멸하였다.

이에 다시 수군통제사에 임명된 이순신은 남은 12척의 병선을 이끌고 전열을 재정비한 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는 명언을 남긴다. 그리고 1597년 9월16일 명량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며 조선은 해상권을 회복하게 된다. 12척의 함선을 거느리고 333척의 적군과 대결해 31척을 격파한 대승이었다.

이해 왜군은 9월18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病死)하자 철군을 서두르게 되고, 1598년 11월19일 노량 앞바다에서 7년간 계속되던 조선과 일본의 기나긴 전쟁을 알리는 최후의 해전이 펼쳐진다.

이때 이순신은 명나라의 수사제독 진린과 함께 왜군의 퇴로를 막기로 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한다. 지원군을 더한 적군은 500여 척의 전선을 노량 앞바다에 집결했고, 이순신은 진격 명령을 내려 적선 50여 척을 격파했다.

진린의 협공을 더한 이순신은 남해 방면으로 퇴각하는 왜군을 쫓아 추격을 계속한다. 그러나



1598년 11월19일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도중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군사들을 독려하던 이순신이 적군의 유탄에 왼쪽 가슴이 관통당했다. 이에 이순신은 방패로 자신을 가리라고 명령하고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는 말을 남기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순신의 전사를 모르면 장병들은 끝까지 싸워 퇴각하는 왜적선 200여 척을 격파하였고, 적군은 50여 척의 배만 수습해 돌아갈 수 있었다. 임진왜란 최후의 결전인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이순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7년간의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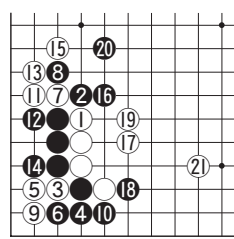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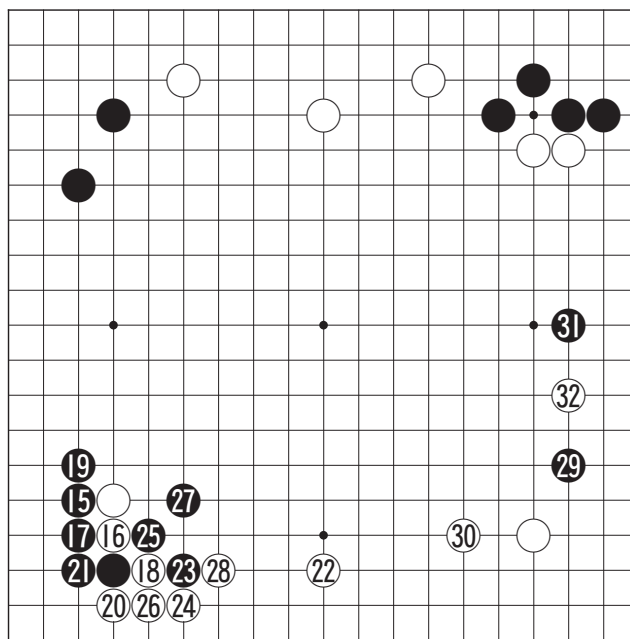
/김여물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복잡한 눈사태형 정석

학생부 결승전 2보 (15~32)

白 이대권 黑 양승하 (인천광역시) (경기도)



<참고도>

흑 19 때 이대권군은 간병하게 백 20으로 물어버리고 22로 벌렸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밀어붙이는 것이 눈사태형 정석의 시작이다. 그러면 복잡한 수순을 거쳐 백 21까지가 예전에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다.

백 16으로 치 받고 18로 짚힌 것이 유명한 눈사태형 정석 중에서 가장 변화가 난해하다는 정석이다.

흑 23으로 붙여간 것은 모양의 급소며 이때 백은 25에 잇는다는지 하는 것은 흑이 24에 내려서는 것이 선수로 좋지 않다. 그래서 위쪽 백 두점을 버리고 24로 호구한 것이 최근에 정형으로 굳어졌다.

흑 27도 선수를 잡기위한 수이며 32로 쳐 들어가 일찌감치 중반전투에 접어들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변중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9일(음 10월 22일 癸亥)

- 36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를 조심하라. 48년생 아내의 건강을 살펴라. 60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72년생 입 조심하라 살아놓은 공로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84년생 주변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1, 32
37년생 구석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49년생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떨어지지 않으리라. 61년생 일 거수 일 부족을 조심하고 마음까지도 조심해야. 73년생 고생은 있으나 좋은 날이 된다. 85년생 이웃과 정을 나누라. 행운의 숫자: 18, 35
38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잡으라. 50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62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74년생 항상 초경길은 불편하나 새로운 활동처를 마련할 수도 있으니 살펴서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11, 41
39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51년생 지금은 순풍에 항해하니 역풍 대비는 미리 하라. 63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경사가 생길 수 있다. 75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행운의 숫자: 20, 38
40년생 또 다시 도전의 기회가 보이니 놓치지 마라. 52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기 조심해라. 64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다. 76년생 순풍과 역풍이 오리라 락하니 조심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12, 30
41년생 바빴던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라. 53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65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러우니 수양하듯 지내라. 77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승진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22, 34
42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54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마련된다. 66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라. 78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02, 31
43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작다. 55년생 절대 주변 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뢰로써 진행하라. 67년생 신용이 무너지면 절벽으로 추락한다. 79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23, 42
44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6년생 암중모색을 하니 쉽지는 않다. 68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80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14, 28
45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7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69년생 불연이던 친지로부터 파벌임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81년생 부부의 애정이나 소폭소폭 살아간다. 행운의 숫자: 24, 44
46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8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70년생 불만과 불평은 본인의 잘못이다. 82년생 식후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16, 17
47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5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71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와 장을 살펴라. 83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애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1, 4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굿모닝 잉글리쉬 <1192>

It sounds like you should tell him. 그 사람에게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 A: Do you think I should tell James how I feel?
B: What is your goal?
A: Just to be hones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B: Well, it sounds like you should tell him then.

- A: 내 기분을 제임스에게 말할까?
B: 뭐대?
A: 정말 솔직해지자는 거야.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
B: 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 * It sounds like ~ = ~인 것 같은데.
* should = had better
* just : 오로지, 단지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92>

でも仕事(しごと)が溜(たま)ってるし... 하지만 일이 쌓여 있어서...

- A: 鼻水(はなみず)とくしゃみが止(と)まらないよ.
B: 病院(びょういん)で注射(ちゅうしゃ)を打(う)ってもらったらすぐ治(なお)りますよ.
A: ええ, でも仕事(しごと)が溜(たま)ってるし...
B: 仕事(しごと)どころじゃないですよ.

- A: 콧물과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
B: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A: 네, 하지만 일이 쌓여 있어서-
B: 일할 때가 아니예요.

鼻水(はなみず): 콧물
くしゃみ: 재채기
仕事(しごと)が溜(たま)る: 일이 쌓이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워 <269>

借我用用。 빌려 주세요.

- A: 你有没有尺子? ni yǒuméiyǒu chǐzi 니오우웨이유양 초스
B: 有。 yǒu 유우
A: 借我用用, 好吗? jiè wǒ yòngyòng hǎo ma 저어 위용양 초오마
B: 好。 给你。 hǎo gěi nǐ 하오 게어니
A: 너는 자를 가지고 있어?
B: 맞아.
A: 빌려 줄 수 있어?
B: 좋아. 여기 있어.

尺子 [chǐzi] 자
借 [jiè] 빌리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909>

蝙蝠之役(편복지역) 박쥐 편, 박쥐 복, 어조사 지, 부릴 역

편복지역(蝙蝠之役)은 박쥐의 구실이란 뜻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이리 불고 저리 불면서 주대없게 행동하는 것을 비유한다. 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교묘하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한 몸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것 등을 일컫는 다.

봉황새를 축하하기 위해 모든 새들이 모인 자리에 유독 박쥐만이 오지 않았다. 봉황이 박쥐에게 '내가 내 밑에 있으면서 어찌 그리 거만할 수 있는냐?'고 꾸짖었다. 박쥐가 '나는 네 밑에 가진 짐승의 족속인데 너 같은 새와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이나?'고 대답했다. 그 뒤 기린을 축수(祝壽)하기 위해 모든 짐승들의 모인 자리에 오지 않았던 박쥐만 오지 않았다. 기린이 박쥐에게 '내가 내 밑에 있으면서 어찌해서 나를 축하하는 연회에 참석하지 않느냐?'고 꾸짖었다. 박쥐가 '나는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너희 짐승들의 잔치에 갈 필요가 있는냐?'고 대답하였다. 이런 행동을 한 결과 박쥐는 날짐승과 길짐승 양쪽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다시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荀子) 여기서 '편복지역'이라는 말이 생겼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